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2월 17일(주일) 제1233호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사진은 지난해 순장영성수련회.

온누리공동체 2019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3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순장영성수련회'

2019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표어로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온누리공동체가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2월 21일 S브릿지, 서대문공동체를 시작으로 3월 15일 강남D, 송파B, 양재공동체까지 이어진다(표 참조).

2019년 상반기 행사는 3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순장영성수련회'가 포문을 연다. 순장 2천 명이 참

석할 예정이다. 순장영성수련회는 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회의 비전과 영성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3월 17일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이 실시된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회복축제', 15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가정의 달 5월에는 행사가 더욱 풍성하다. '어린이 주일(5일)'과 '아버지 주일(12일)'에 이어 15일부

터 16일까지 '러브소나타 시즌오카'가 막 오른다. 20일에는 '맞춤전도'가 예정되어 있다. 6월 12일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차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진'이 사흘 동안 이어진다. 7월 부터는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하용조 목사 소천 8주기' 추모기간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체험하는 목회자”

제17기 온누리목회사관학교 ... 목회자 341명 참석

제17기 온누리목회사관학교(이하 목사관)가 '기름 부으심(The Anointing)'을 주제로 지난 11일(월)부터 3박4일 동안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41명(전임 187명, 파트 154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R. T. 캔달 목사가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목회자는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

했다.

R. T. 캔달 목사는 "어제의 사람 사울은 왕관은 있으나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고, 내일의 사람 다윗은 왕관은 없으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써 내일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9년 1차
선교사 파송명단

신아벨, 이셀라 선교사_ 중동E국(장기)
황실리 선교사_ 니카라과(단기)
김상훈 선교사_ 멕시코/미서부(단기)

김주희 선교사_ 남아시아E국(단기)
김혜진 선교사_ 스리랑카(전문인자비량)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2월 21일	S브릿지	두란노홀	18:00
2월 21일	서대문	한동홀	18:00
2월 22일	마포	시온홀	18:00
2월 22일	성동광진	비전홀	18:00
2월 22일	신용산	한동홀	18:00
2월 24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18:00
2월 26일	가정사역	시온홀	18:00
2월 26일	여의도	두란노홀	18:00
2월 26일	이수	한동홀	18:00
2월 28일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3월 2일	광명	하안장로교회	16:00
3월 3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3월 3일	성북	EM전사관	12:00
3월 4일	충주로	두란노홀	18:00
3월 5일	강서	시온홀	18:00
3월 5일	양천	비전홀	18:00
3월 5일	용산	두란노홀	18:00
3월 5일	이촌	한동홀	18:00
3월 7일	occ	한동홀	18:00
3월 7일	강촌	두란노홀	18:00
3월 7일	노원	상현교회	19:00
3월 7일	동작	비전홀	18:00
3월 8일	관악금천	비전홀	18:00
3월 8일	서빙고	시온홀	18:00
3월 8일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18:00
3월 8일	천양사역	한동홀	18:00
3월 9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3월 10일	김포	EM전사관	12:00
3월 10일	특초	순형홀	17:00
3월 12일	한강	비전홀	18:0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3월 5일	도곡	온유홀	19:30
3월 5일	분당B	드림홀	19:30
3월 5일	송파A	화평홀	19:30
3월 6일	강남C	온유홀	19:30
3월 6일	경기B	화평홀	19:30
3월 6일	분당A	드림홀	19:30
3월 7일	서초D	온유홀	19:30
3월 8일	POINT5	온유홀	19:30
3월 8일	강남B	화평홀	19:30
3월 8일	서초C	드림홀	19:30
3월 10일	푸른누리	화평홀	15:40
3월 10일	하모니	비전홀B	15:30
3월 12일	CMN	드림홀	19:30
3월 12일	강남A	온유홀	19:30
3월 12일	서초B	화평홀	19:30
3월 14일	서초A	온유홀	19:30
3월 15일	강남D	드림홀	19:30
3월 15일	송파B	온유홀	19:30
3월 15일	양재	화평홀	19:30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3월 3일	부천 공동체 연합	본당	19:00
3월 7일	수원 남누리	비전홀	20:00
3월 7일	수원 북누리	경전홀	20:00
3월 8일	수원 동누리	경전홀	20:00
3월 8일	수원 서누리	비전홀	20:00
3월 8일	대전 공동체 연합 (동누리, 서누리, 남누리, 북누리)	본당	19:30
3월 8일	남양주 B	3층 본당	20:00
3월 8일	남양주 C	2층 차세대실	20:00
3월 9일	남양주 A	3층 본당	19:30
3월 3일	평택 공동체 연합	본당	16:00
2월 22일	인천 연합	제니생 8층	19:30
3월 7일	강동 말씀	본당	20:00
3월 8일	강동 믿음	본당	20:00
3월 1일	양지 동누리	박모세홀	20:00
3월 1일	양지 서누리	킬보른홀	20:00

당회

일시: 2월 23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

일시: 2월 24일(주일) 2부 예배 후
대상: 모든 제직 장소: 서빙고 본당

공동의회

일시: 2월 24일(주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사랑과 관심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다

햇살보다 따뜻한 평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사랑과 관심 아닐까? 사랑과 관심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다.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 성도를 살려내고 있다. 서흥근 집사가 경험한 햇살보다 따뜻한 평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이야기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평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서흥근 집사 가정.
 ▲ 평소에도 가족처럼 지내는 서흥근 집사와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남편을 살렸어요.” 림프종암으로 투병 중인 서흥근 집사(평택 온누리교회)의 아내 홍숙정 집사(평택 온누리교회)의 고백이 가슴 절절하다. 흥 집사가 평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이토록 큰 감동을 받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교회와 성도들의 한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과 관심은 전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전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 집사의 쾌유를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서 집사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등산도 다녀왔다.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던 흥 집사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만 있을 때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남편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기도 덕분에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이 다시 걷게 됐어요. 큰 사랑과 관심 주시고 늘 기도해주시는 평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병 중인 서흥근 집사를 위하여

서 집사는 10여 년 전 림프종암이 발병했다.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다행히 꾸준한 관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림프종암이 완치된 이후 서 집

사는 누구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교회 행사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순장으로 헌신했다.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이자 따뜻한 아버지였다. 큰 어려움 없이 정말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난해 9월 청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완치됐던 림프종암이 재발했다. 서 집사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작년 9월 11일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에 종양이 생겨 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거든요. 암이 골반까지 퍼져 좌골신 경통을 앓고, 다리에 있는 근육이 전부 빠졌어요. 왼쪽 다리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큰 절망에 빠져있는 서 집사에게 순신국 목사(평택 온누리교회 담당)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주고 수시로 심방을 왔다. 순 목사는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전에 서 집사의 근황을 알리며 함께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덕분에 지금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서 집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 집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서 집사를 위한 기도는 평택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순모임, 성도들의 중보기도모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현실 집사(평택 온누리교회)는 서 집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서흥근 집사님이 병상에 누워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서 집사님에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겨주면 정말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은성 집사(평택 온누리교회)는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서 집사를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잖아요. 가족이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서 집사님이 겪고 계신 고통이 저의 일처럼 느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서 집사가 속해 있는 요한2순 순원들은 매일 밤 서 집사를 위해 기도하고, 단체 SNS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 서 집사에게는 순원들의 기도와 나눠준 말씀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다.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서흥근 집사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서흥근 집사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눴다. 서 집사는 그 따스한 손길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에 보태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림프종암이 재발했을 당시 서 집사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홍숙정 집사도 남편 병간호 하느라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나서서 서

집사의 딸을 보살폈다. 식사와 집안일은 물론이고,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서 집사의 딸이 학업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줬다. 서 집사의 딸 서지원 학생은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아빠가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혹여나 잘못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셔서 아빠에 대한 걱정이 많이 덜어졌거든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던 대학에도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평택 온누리교회 몇몇 성도들이 서 집사의 집을 찾아가 준비한 울동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었다. 서 집사는 평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사랑과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

평택 온누리교회도 서 집사를 섬기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유병에 집사(평택 온누리교회)는 그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서흥근 집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형창 집사(평택 온누리교회)는 교회만큼 든든한 동역자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평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흥근 집사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아프더라도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는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김성훈 집사와 김삼선 집사(평택 온누리교회)는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 같다고 간증했다.

“서흥근 집사님을 통해서 평택 온누리교회가 한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처럼 성도님 한 분이 아프니까 목사님부터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서 집사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일강단



마크 최 목사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사고가 터집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열 명의 나병환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나병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과도 살 수 없고, 마을 밖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나병환자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상황 뛰어 넘어 '기도하는 믿음'

나병환자들에게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말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1~13절).

예수님이 열 명의 나병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딴 마을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병환자들이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3절)”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병환자들은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보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병환자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한 마디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아시죠?”라고 하지 말고 “병에 걸렸습니다. 사고를 만났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

에 걸린 자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가정,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예 전념하고 있었습니”(14절).

그들이 기도예 전념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열 명의 나병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상황 뛰어 넘어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열 명의 나병환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14절).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환자들은 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지더라도 그냥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몸이 깨끗해지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정결예식을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순간에는 몸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서로를 보면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간지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가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을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롬 4:18).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이 언제 눈을 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을 뛰어 넘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 뛰어 넘어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나병환자들에게 배워야 할 마지막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15~19절).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모두 나았는데 그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

각해 보십시오. 왜 그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병이 나은 것이 감사하 기도 했지만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17절).

예수님이 섭섭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홉 명이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것이 섭섭해서가 아니라 나병환자 아홉 명이 병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섭섭함과 안타까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홉 명의 나병환자들의 병이 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가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보다 질병을 고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연구가 매튜 헨리 목사는 “감사를 드리는 것(thanks-giving)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삶(thanks-living)은 더 좋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십시오.

“하나님,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어쩌다 노인이 혐오 대상이 됐을까?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 … 2023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드는 데 힘 보태야

“늙어서 안 좋은 꼴 되기 전에 일찍 죽을 거예요.”

2014년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심은경, 나문희 주연) 속 대사이다. 이 영화에서 국립대 교수이자 노인문제 전문가 반현철(성동일)이 대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더니 ‘검버섯’, ‘쭈글쭈글’, ‘냄새난다’, ‘뻘뻘하다’, ‘주장 강한 존재’ 등 부정적인 단어가 쏟아졌다. 여기에 한 여대생이 “늙느니 차라리 일찍 죽고 말겠다”며 썬치를 박았다. 가슴 아픈 이 장면이 현실과 똑같다. 대한민국 노인혐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경로(敬老)’가 아니라 ‘혐로(嫌老)’라고까지 말한다. 어쩌다 노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됐을까?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 진짜 임신한 거 맞아?”

2016년, 임신 27주 여성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7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만취한 노인이 진짜 임신한 게 맞는지 확인한다며 임부복을 걷어 올리고, 배를 가격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 이후 노인비하와 혐오발언들이 쏟아졌다. 노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더 싸늘해졌다. 물론 노인에 대한 지위 하락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 변모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요즘처럼 노인이 혐오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혐로(嫌老)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연금층(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노인), 할매미(공공장소에서 매미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할머니), 툭툭충(노인이 말하는 모습을 틀니를 툭툭거리는 소리에 빗댄 말), 노슬아치(노인+벼슬아치의 합성어, 나이 든 게 벼슬인 줄 안다는 뜻) 등의 용어들이 떠돌고 있다. 노인들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1천명과 청장년(19~64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년(19~39세) 응답자 80.9%가 ‘우리 사회가 노인에 부정적 편견이 있고, 이 때문에 노인 인권이 침해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77.1%는 ‘노인복지 확대에 청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했고, 56.6%는 ‘노인 일자리 증가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 응답자 81.9%는 ‘노

인-청년 간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노년층 응답자(44.3%)의 두 배 수준으로 청년들이 노인들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17년)에 따르면 청소년 66.6%가 ‘앞으로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그 원인

어쩌다 노인이 혐오의 대상이 됐을까? 앞서 언급한 사건 같은 사회적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그 원인이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2%에 달해 이미 ‘고령 사회’ 진입을 확정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이 24년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이 추세대로면 한국은 2023년 20.2%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달프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세

계 1등이다. 노인 자살율도 세계 1등이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이 설 자리마저 잃고, 혐오와 갈등을 빚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역시 성경에 그 답이 있다.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

성경은 노인을 결코 혐오나 문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경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등장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여호수아 110세였다. 성경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이라고 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욥 12:12).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 32:7).

또한 성경은 노인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했고, 노인을 돌보지 않는 민족은 흉악하다고 지적했다.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레 19:32).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신 28:50).

성경은 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노인혐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성경은 노인에게 ‘젊은이를 위한 롤모델이 되라’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했다.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시 71:18).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 제사장이다. 엘리는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랐지만 두 아들에게 분이 되지 못했다. 아들들의 비행과 잘못을 교정해주지 못했다. 결국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다.

또 성경은 노인들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손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 27장, 신 33장). 성경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임종 즈음 후손들에게 노래 혹은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주는 것을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으로 여겼다.

야곱은 임종하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손자들을 데려오게 해서 축복기도를 해줬다.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은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했다. 요셉은 맏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려와 야곱의 오른편에 므낫세를, 왼편에 에브라임을 세웠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어긋맞게 교차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렸다. 옆에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며 축복기도를 해줬다(창 48장). 이에 그치지 않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불러 마지막 축복과 예언을 했다. 이때도 야곱은 뜻밖의 축복을 했다. 장자인 르우벤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 장자권을 박탈하고, 유다와 요셉에게 장자로서 갑절의 축복을 했다.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실로 위대했다. 출애굽 한 이후 광야생활을 할 때 1차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인구가 가장 많았다. 광야를 행군할 때는 성막 일을 담당하는 레위지파를 제외시키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아우)과 므낫세(형)지파를 12지파의 수장으로 승격시켰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유다와 에브라임지파가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차지했다. 어디 그뿐인가. 남유다 왕국의 왕은 다윗 이후 유다지파가 왕권을 계승했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했다. 할아버지의 축복의 힘을 기억해서일까?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2천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다 1948년 독립할 때 위대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얻은 새 이름)로 지었다.

물론 모든 노인들이 통찰력 있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인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총명한 젊은이라도 절대 가질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경륜을 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살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경험이다. 세상이 노인을 문제라고 혐오할 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지혜와 경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

“주님,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대 할아버지들의 역할 그리고 사명



도은미 사모
(아버지학교 창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할아버지학교’ 강사)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수 14:10-12).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헤브론을 기점으로 받을 때 그의 나이 85세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85세면 노인이다. 그러나 노인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도 할 수 있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편안한 노후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갈렙은 도리어 힘든 싸움을 택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되었다. 노인의 시대가 된 것이다. 노인 시대의 중심인 할아버지들이 방관자로, 무력자로, 방황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많은 할아버지들이 ‘늙어서 아무 것도 못 한다’ 혹은 ‘나이 들었으니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거나 해택만 누리려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게다가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과 지식이 넘치니 잔소리와 비판만 늘어난다. 할아버지 인데도 막상 할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왜 할아버지야?”라며 화를 내기도 한다.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라는 자신의 정체성 언어를 거부하고 있다.

100세 시대, 은퇴하고 적어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할아버지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할아버지들이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생동감 넘치는 할아버지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할아버지의 ‘할’ 자가 꼬부라진 ‘할’이 아니라 ‘살 활(活)’이 되어야 한다. “주님, 제가 할아버지입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응답하는 놀라운 할아버지로 거듭나야 한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전설을 남기는 ‘스토리텔러’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잠 17:6).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은 ‘할아버지-아버지-손자’의 할아버지를 말한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려면, 아버지가 자식의 영화가 되어야 가능하다. 아버지가 생생하게 전



“이 땅과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고,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통합시키는 역할은 할아버지들밖에 할 수 없다.”

해주고 들려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영웅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사명과 역할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막중하다. 뒷방 늙은이(주도권이나 재산 따위가 없어 집안에서 실권이 없는 노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살아낼 영웅적 이야기로써의 할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할아버지는 산 조상이다. 어쨌거나 한 국민에게는 죽은 조상이라도 잘 모셔야 최소한 저주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후손들은 절기 때마다 혹은 돌아가신 날들을 기억하며 그 힘을 다한다. 그러나 조상이 살아있을 때 복을 선포하지 못하면 미래를 열지 못하는 것이 진리이다. 조상은 살아있을 때 그 몫을 다해야 한다. 축복하고, 선포하고, 지혜로 현재를 풀어주고, 계시로 미래에 소망을 주어 자손들로 하여금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 그게 산 조상이다.

둘째, 할아버지는 전설을 남기는 자이다. 한 국민에게 전설이라고 하면 ‘전설의 고향’의 귀신을 떠올린다. 그러나 원래 전설(Legend)은 ‘영웅의 이야기’이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자손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손들이 둘러앉을 때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야 한다. 할아버지는 후손들이 오늘 살고 싶어 하는 이야기요, 따라가고 싶은 삶의 이정표여야 한다. 어떤 전설을 남겨야 할까? 바로 ‘인격의 전설’을 남겨야 한다. 곧 ‘믿음의 인격’이요 ‘신앙의 인격’이다. 거창하고 대단해야 영웅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자. 일상생활의 자잘하게 감동적인 스토리를 남기면 된다. 쓰러져 있는 걸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추위 떠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옷도리를 벗어주는 산 예화를 남긴 할아버지라면 후손들이 그 할아버지를 분명 산 인격자였다고 기억할 것이다. 예배 전과 후 30분을 자손과 나라, 열방과 천국 도래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할아버지는 분명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으로 기억될 것이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장학회 만들어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왔다면, 그는 후손에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 손자를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할아버지는 ‘참으로 많이 사랑해주신 할아버지’로 기억될 것이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추억할 때 곧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성경말씀이 이뤄진다.

셋째, 할아버지는 생활하는 산 신화(神話)다.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산 신앙자다.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뵈듯 해야 한다. 관계가 파괴되고

영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하나 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 분열에서 통합을 이루는 하나 됨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전쟁이다. 그 전선(戰線)에서 누구보다 할아버지들이 싸워줘야 한다. 모든 할아버지들이 ‘나는 영적전쟁 중에 있다’, ‘나는 영적 사역자다’라는 투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하다못해 임진각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분열의 시대이다. 남북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 간 분열, 정치 이념으로 인한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 모든 계층마다 그 분열이 심각하다. 이 모든 상황에서 통합을 선포할 수 있는 세대는 할아버지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들은 이 시대를 겪어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할아버지들이 지금을 살아줘야 한다. 그래서 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할아버지는 영원한 현재자다. 영원(永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할아버지야말로 시간적 죽음이 가장 현실적인 존재이기에, 그 시간을 초월해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존재가 돼야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좋은 예이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해 “행위를 볼 때 의롭다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했다”(롬 4:1-11).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를 의로운 산 조상이 되게 하였고, 산 전설이 되게 하였고, 지금도 살아있는 산 신화가 되게 하였다. 그가 남긴 신화를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의해 지금까지 내려왔고,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영원한 현재자인 것이다.

필자의 지인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분은 오랫동안 고아원을 섬기다 그곳에서 만난 남매를 데려와 친자처럼 키우고 있다. 입양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 위탁해서 키우고 있다. 나이로는 할아버지 뻘이지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른다. 그 지인에게는 다 큰 자녀들과 손자들도 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참으로 산 조상이요, 산 전설이요, 살아있는 신화요, 영원한 현재자라고 대대손손 이야기 할 것이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할아버지학교
일정: 2월 23일, 3월 2일, 9일(토)
오후 1시
장소: 두란노서원 1층 불레싱홀
문의: 02-2078-3456

예수제자학교(JDS)에서 변화된 사람들

명소연, 엄주길 부부, 문주현 집사의 고백

여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스쿨이 있다. 예수제자학교(Jesus Disciples School, JDS)이다.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은 총 22주(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는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쏟아내는 간증만큼 귀한 게 없다. 명소연, 엄주길 부부(경기A공동체)와 문주현 집사(강남C공동체)는 지난해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예수제자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올해는 간사로 헌신해 학생들을 섬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해 예수제자학교 양재 주간반 학생들의 아웃리치 현장.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머리모만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한 지식들을 가슴과 삶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일상생활에서의 영적훈련 방법, 예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했습니다.”

명소연, 엄주길 부부의 입술에서는 예수제자학교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부부를 이토록 감동시켰을까?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직접 경험해 보면 예수제자학교가 왜 좋은지, 얼마

나 좋은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명소연 성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에 지쳐있었다. 바쁜 직장일과 박사과정 공부를 감당하느라 벅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신앙이 정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정작 삶으로 돌아오면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삶이 괴롭하고 힘드니까 갈수록 지치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르

겠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가 함께 예수제자학교에 신청했다. 그리고 달라졌다. 그 이후 “예수제자학교에 참가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제자학교에서 큐티 방법을 점검하게 되었고, 말하는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친밀해졌습니다. 예수제자학교를 같이 하면서 부부 간 대화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명소연, 엄주길 부부는 아직 예수제자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영어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배우려면 돈이 들고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돈은 상대적으로 덜 쓰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정말 좋은 과정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예수제자학교에는 무언가가 있다!

문주현 집사(강남C공동체)도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자신의 신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주현 집사는 초신자였던 순원이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신청을 했다.

“자신의 치부와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원은 순모임에 올 때마다 깊은 속내를 고백하고 회개하더라고요. 또 예수제자학교에서 배우고 느낀 은혜들도 나눴고요. 그 순원을 보면서 예수제자학교에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원이 변화된 것처럼 문주현 집사 또한 예수제자학교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남편이 제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섭섭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보다 저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말투와 표정도 부드럽게 변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더러 표정이 많이 편해졌다고 할 정도예요.”

문주현 집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제자학교가 좋은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상황과 긴 훈련과정이 부담스러워서 참가를 주저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자폐증이 있는 둘째아이 돌보느라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꼭 예수제자학교에 참가하십시오. 예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참가문의: 02-3215-3625

목회칼럼

“그렇다면 예수제자학교에 도전하십시오”



김영배 목사
(양재 예수제자학교 담당)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내면에서 찾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영적 성숙을 위한 부르심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 받은 성도들이 끊임 없이 영적으로 성숙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부모 곁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문다. 부모 곁에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정은 한 생명을 소중히 수용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정으로 기르는 곳이다. 그래서 순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위니컷이 말한 것처럼 ‘충분히 좋은 어머니’ 역할로 인해 그 내면에 체득된 사랑으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긍정적이며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이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 3:2-8).

예수제자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학교이다. 즉, 성령학교이다. 우리는 그동안 변화와 성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에 대한 불행과 자기연민, 용서할 수 없는 분노, 때로는 자신도 통제 불가능한 화(火) 등의 실체가 남아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한 가정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수용, 격려를 받으면서 자기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하게 된다. 예수제자학교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이다.

6개월 동안 준비된 간사님들이 충분히 좋은 임마로 서서 학교와 학생들을 섬긴다. 간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학생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회복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예수제자학교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마 28:16-20)을 이루어가는 학교이다. 예수제자학교에서 영적인 훈련과정을 마친 이후 가정과 교회, 사회와 선교지에서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변화와 성숙을 통해 행복한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영적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예수제자학교에서 영적인 도전을 할 것을 권한다.

“고마워요 엔젤트리!”

예지교회와 온누리교회의 그 아름다운 만남

지난해 연말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로부터 가슴 따뜻한 선물을 받은 이웃들의 인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는 사연 3,729건에 또 하나의 희망과 사랑을 선물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배달된 곳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예지교회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고 크게 감격했다. 예지교회와 온누리교회는 8년 넘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함께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 힘이 난다는 임선미 목사(위), 예지공동체를 위한 바자회(아래).

예지교회는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다. 예배당의 크기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속이 짝 찬 교회다. 벽에 수놓은 알록달록 예쁜 꽃처럼 지역사회에서 향기 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예지교회는 아동그룹홈과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예지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연말 연초를 손꼽아 기다린다. 온누리교회 엔젤트리가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임선미 목사와 예지교회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늘 감사하고 있다.

예지교회에 다니고 있는 미소(가명)도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미소는 실어증을 앓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이다. 치료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예지교회 임선미 목사를 만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미소는 예지교회에 2년여 동안 출석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됐다.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미소의 말문을 트었다. 올해는 미술장학생으로도 선정

됐다.

“미소와 아이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에 꼭 보답하겠고 약속했어요. 엔젤트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올해는 겨울 옷, 책가방, 학용품 등을 주로 보내주셨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엔젤트리가 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신학기에 새 가방과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아동그룹홈은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6~7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예지교회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온누리교회 엔젤트리와 1다락방 1사역

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온누리교회와 예지교회의 특별한 인연

예지교회와 온누리교회는 8년 동안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8년 전 온누리교회 순장사관학교에 참석한 순장들이 예지교회로 아웃리치를 왔었다. 그때 한 순장이 임선미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이 인연이 한 번으로는 안 끝납니다.”

그 말처럼 온누리교회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 온누리교회 양육팀이 찾아와 예지교회 성도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열었다. 그 후에 인연이 끊어지자 싶더니 성동광진공동체 누가다락방과 용산공동체 기쁨다락방이 ‘1다락방 1사역’을 하겠다며 예지교회를 찾아왔다. 예지교회로 순장사관학교 아웃리치를 왔던 순장이 1다락방 1사역지로 적극 추천한 것이다.

“예지교회는 전혀 꾸미지 않은 낯것 같은 교회였는데 봉사자들과 온누리교회 동역자들 덕분에 환하고 예쁜 교회로 탈바꿈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섬김이 예지교회 변화의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성동광진공동체 누가다락방은 매월 한 번, 용산공동체 기쁨다락방은 분기당 한 번 예지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엄청나게 큰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그저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작은 섬김이 예지교회에는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목회자로서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찬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동그룹홈이나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사정에 따라 예배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거든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몇 번 오고 가는 손님이 아니라 예지공동체 구성원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는 ‘예지공동체’

‘예지공동체’는 예지교회 성도들과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예지교회 출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지공동체에서는 건강한 영적 재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예지공동체에서는 성도들의 건강한 자립, 생명 존중과 나눔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위기 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지교회 임선미 목사는 건강한 자립의 시작은 ‘영적 자립’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예지공동체의 동역 자체가 유익이라고 확신한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복지 서비스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립의 핵심은 영적 자립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사회로 나아가서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지교회에서 자라면서 꿈을 키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지공동체입니다.”

임 목사는 예지공동체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기쁜 일이라고 했다. 구성원 모두가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예지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줬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간호사, 항공엔지니어, 음악가가 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겠다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은혜(가명) 자매도 건강하게 자립한 예지공동체 구성원이다. 은혜 자매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예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은혜 자매는 하나님과 예지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신학생이 되었다. 신실(가명) 자매도 예지공동체에서 꿈을 키워 실용음악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예지교회에서 반주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예지교회 임선미 목사는 건강한 크리스천들을 세상으로 계속 파송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의 작고, 어려운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달라고 부탁했다.

“지역사회에 귀하고 소중한 예배공동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수의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그 공동체를 혼자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예지공동체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와 공동체를 도와주십시오.”

지난해 엔젤트리를 통해 후원했던 공동체나 교회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는 취지이다. 후원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 축스럽다면 다른 성도들이 후원한 곳을 추천 받아 방문하는 것도 좋다.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저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만 봐도 큰 선물이다.

문의: 사회선교본부 02-3215-3434

신년특집 성령 따라 온 누리로!

“그래서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태원에서 자비량 쉼터 운영하는 홍성민 목사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역지가 너무 많다. 본지에서는 ‘성령 따라 온 누리로’를 주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과 사역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안타까운 사연의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선교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이태원에서 자비량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민 목사(살롬하우스)다. 동역자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이태원에 정착해서 무슬림, 동성애자, 다문화가정 아동을 섬기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홍성민 목사의 쉼터 '살롬하우스'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아랫 골목에 있다.

한국의 소동과 고모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용산구 이태원을 지명할 것이다. 그만큼 용산구 이태원은 유흥과 환락의 장소로 손꼽힌다. 이태원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고, 주말이면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유흥과 환락에 빠져든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동성애 유흥업소 골목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편의점보다 많다는 교회를 찾기는 어렵다.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교회 하나를 제외하면 불이 켜진 십자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죽하면 흑자들은 조금 과장해서 이태원을 소개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도시’, ‘가기만 해도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도시’라고 부른다.

이태원에서 자비량 쉼터 ‘살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민 목사와 이태원을 한 바퀴 둘러봤다. 간판의 불이 꺼진 유흥가 앞에는 지난 주말 광란의 밤을 짐작케 하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었다. 그 골목에는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이 가득했다. 거리마다 할랄 푸드를 파는 가게들도 즐비했다.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 방향으로 가는 언덕에는 이슬람 사원이 우뚝 서있다. 그 근방에는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정말 많다. 그에 반해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 사이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철거하는 비용이 아까워 치우지 않은 불이 꺼진 십자가 탑 두 개만 있을 뿐이었다. 홍성민 목사는 그 어느 선교지보다 이

태원에 크리스천들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태원은 영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꼭 필요합니다. 굳게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할 크리스천들 말이예요. 이태원에는 무슬림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 중에서 30%는 명목뿐인 무슬림들이예요. 집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무슬림들이죠. 저는 그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동성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도 ‘그만두고 싶다. 우리도 정말 힘들다’고 토로해요. 그들을 양지로 이끌어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요. 이태원에서만 자생적으로 생긴 외국인 예배도 있어요. 그들 스스로 예배드리고, 전도를 해요. 그들을 도와줄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성민 목사의 ‘이태원 전도’

홍성민 목사는 5년 전 동역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태원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척박한 도시이기에 전도자 한 명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홍 목사는 이태원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 해밀톤 호텔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태원에 놀러온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태원 노방찬양은 정말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아내와 둘이서 기타를 치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찬양했어요. 저희 부부가 찬양 실력이 탁월해서 한 게 아니예요. ‘저런 수준도 노방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노방찬양을 2년 정도 꾸준히 했더니 다른 전도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홍 목사는 이태원을 오가는 시민들이 복음을 듣건 듣지 않건 그 자리를 지키고 전도했다. 노방찬양을 하고, 찬양할 때마다 희망이 보였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도방법도 고민했다.

“한번은 핼러윈데이에 사랑을 주면서 전도를 해봤어요. 다들 싫어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해 핼러윈데이에는 예수님 분장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오가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태원이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희망이요.”

홍 목사는 거리전도를 통해 만난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동성애 유흥업소로 유명한 골목에 자리한 교회와 동역하면서 주일 저녁마다 드린 국제연합예배에는 가나,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참석했다.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를 계속 드린 게 아니예요. 장애인 성도 한 분이 후원해주시는 빵 덕분에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난 많은 외국인들이 이태원에서 예배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예요.”

국제연합예배를 드린 지 2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동역하던 교회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성애 유흥업소 골목을 떠났다. 그 뒤로 이태원 골목에서는 불이 켜진 십자기를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하루아침에 예배드릴 곳을 잃은 홍 목사와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태원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또 한 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민 목사는 이태원을 떠나지 않았다.

“이태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슬람 사원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다 생각해낸 게

바로 쉼터예요.”

홍 목사는 길거리에서 노방찬양을 하면서 오갈 데 없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면서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을 보호해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슬람 사원 바로 아래 우사단로에 거처를 마련하고 쉼터로 꾸몄다. 방 하나는 홍성민 목사 부부가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쉼터, 다문화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 가정집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지만, 누구나 찾아와 쉼을 얻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숙인, 난민 등 오갈 곳 없는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지금은 이집트에서 온 지미 형제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지미 형제는 이집트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다. 아버지의 명예살인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했다. 한국에서도 이집트인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선교단체로 피신했었다. 그 선교단체에서 지미 형제에게 홍 목사가 운영 중인 ‘살롬하우스’를 소개해줬다. 지미 형제는 올 봄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홍 목사가 운영하는 쉼터는 주말이면 이태원 인근에 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태원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 30% 이상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다. 홍 목사의 아내 김혜연 사모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초대해 공부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태원으로 초대합니다”

이태원에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주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 전도, 무슬림 전도, 동성애자 회복을 위한 사역, 외국인 공동체 지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홍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살롬하우스에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홍 목사는 평생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살롬하우스 운영하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여러 번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은 다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이태원으로 초대합니다.”

문의: 010-8704-5812

또 하나의 별이 하늘로 쏘아 올라갔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떠난 한 자매의 이야기

크리스천은 누구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전도로 나눌 만큼 말이다. 병원선교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룰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 생과 사를 오가는 병실에서는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개강을 앞두고 김정숙 목사가 병원선교사로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긴 한 자매의 이야기를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정숙 목사
(온누리 호스피스,
삼성서울병원선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엡 4:7).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를 부어 주셨다. 나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친구나

거의 매일 찾아오는 거지에게 부모님 몰래 쌀이나 먹을 것을 제공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에게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놀렸는데 마음이 아픈 나는 어둠이 내리고 동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긴 막대기를 잡으라고 해서 집으로 모셔왔다. 매번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의 더러워진 몸을 씻겨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조촐한 식사를 동그란 작은 상에 내 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온다. “저 느루 가시나 장차 뭐가 될는지. 고아원 원장이 될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은 병든 자를 돌아보는 삼성서울병원선교와 온누리 호스피스 사역을 섬길 수 있게 했다. 지금 나는 안식월로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을 받고 아웃리치 기간을 갖고 있다. 평화롭게 느껴지는 자연은 하나님 창조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알게 해줬다.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관은 밤하늘의 영롱하게 빛난 별들과 은하수다.

오늘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반짝이는 별 무리들이 온 시야에 펼쳐져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저 반짝이는 별들이 네가 쏘아 올린 별들이란다.”

가슴 뭉클한 감격의 순간 하늘에 병상에서 만났던 익숙한 이름들과 얼굴들이 빛났다. 정애, 영미, 미정이, 준호, 영은이, 민석이, 주하 그리고 한용철, 도병욱, 신한기, 김상웅 어른님과 어린 아이들까지 말이다. 지난해 11월 12일 또 하나의 별이 하늘로 쏘아 올라갔다.

민정 자매 이야기

“목사님!! 우리 민정이가 임종기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정 자매의 남편 문호 형제가 보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민정 자매가 결국 쌍둥이자녀 지유와 지찬이(6세)를 남겨 두



건강한 민정자매(왼쪽 윗줄)와 이재훈 담임목사와 함께한 가족심방.

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가족 구성원에서 저 하늘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민정 자매는 누구보다 탁월한 병원선교사였다. 병원에서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가족 구원을 이뤘기 때문이다. 남편이 병실에 있을 때는 남편을 전도했고, 본인이 병실에 있을 때는 어머니를 전도했다. 가정선교를 감당하고 떠났으니 이보다 소중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내 휴대폰에 남아 있는 민정 자매의 문자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2018년 8월 24일(금)

목사님...

기쁜 소식~~~~(♡♡)

내일 오시면 저희 엄마가

영접 기도 받으시겠대요~~

꼭 오셔야 해요 (♡♡)

민정 자매를 알게 된 것은 7년 전 삼성서울병원에서 남편 박문호 형제가 형님에게 간을 공여하는 수술을 받는 시점이었다. 민정 자매는 아직 믿지 않는 시댁 가족과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실을 찾아와 사연을 나누었다.

당시 나는 문호 형제를 만나고 형님을 만나면서 질병에 관한 이야기,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형제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형님은 수술 전에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수술을 잘 받아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 문호 형제 또한 병상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내의 간절한 소망을 이제야 받아들이는 고백했다. 퇴원 후에도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했고 문호 형제는 세례를 받

기로 결심했다.

수년간 혼자 예배드리던 자리에 든든한 남편이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온 세상을 얻은 기쁨을 나누었다. 민정 자매는 남편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행복해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또 다른 기도제목이었던 출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현대 의학을 고려해 보기로 했다. 시험관 아기의 부담감도 사랑하는 남편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반복된 실패를 이겨가고 있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예배가 끝나면 나는 언제나 교역자 자리에 앉아 민정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제는 없는지 노심초사 하는 민정 자매의 얼굴을 살피면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다. 민정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도 마음을 조이며 매주 간절히 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던가. 인내하고 수고하던 과정 끝에 쌍둥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뻐했다.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던 날은 이 부부가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민정 자매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났고 남편 문호 형제도 김포공동체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행복해 했다. 민정 자매는 아내로, 엄마로, 딸로 지혜롭고 현숙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이 가정에 허락 되고 있었다. 민정 자매가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내면서 자신의 몸이 상해 가는 것도 모르

고 있었다. 체장암 4기 선고를 받으면서 질병이라는 큰 산을 만난 것이다. 누구나 질병을 앓게 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하나님을 한 두 번쯤 원망하게 되는데 민정 자매는 고통을 찬양과 말씀으로 겪어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은 굴곡이 없었고 질병으로 눈 앞 가까이 찾아온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했다. 손실된 머리카락 때문에 예쁜 모자를 쓰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

2년 전 ‘거북이 마라톤’이 한참인 한강 고수부지에서 민정 자매 가족을 만났다. “항암 치료 중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라고 하자 “목사님 고수부지 나오니까 너무 좋고 이 행사가 너무너무 좋아요”라던 민정 자매의 말이 생각난다.

건강한 우리들은 너무 많은 감사와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새롭고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지유와 지찬이를 데리고 남편 문호 형제까지 대동하고 온 가족이 보내던 그 기쁜 순간을 마음에 새겨 놓고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을 민정 자매가 그림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병든 자를 돌보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지유와 지찬이는 엄마 보고 싶을 때 담임목사님과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잘 자라줄 것이다. 남편 문호 형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낼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읽으신 성도들을 복음전도자와 병원선교사로 초청한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에서 병원선교, 호스피스 사역의 전문가들과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호스피스 사역과 병원선교가 더 아름답게 펼쳐지면 좋겠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수놓인 별들처럼 병실 곳곳에서 환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날짜: 3월 6일~5월 8일
시간: 매주 수 12:40~16: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문의: 온누리 호스피스스쿨 010-3412-7966
010-6312-9972
삼성서울병원 선교 010-3066-6110



2019 차세대 신년모임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차세대 교역자들을 격려했다.

“차세대는 온누리교회의 미래”

차세대 신년모임, 교역자 교육위원 135명 참석

2019 차세대 신년모임이 지난 10일 ‘다음세대 응원단’을 주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차세대 교역자 13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차세대 신년모임에서는 차세대 사역 소개, 비전과 포부 등을 공유하고, 서로 교제하며 친목을 다졌다. 차세대 신년모임은 캠퍼스별 인사, 장로 인사, 신임 교역자 및 장로 소개, 담임목사 인사, 차세대사역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차세대는 온누리교회의 미래”라며 “앞으로 15년, 20년, 30년 후의 온누리교회를 바라보며 차세대를 섬겨달라”고 당부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는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다음세대에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희창

장로(차세대 대표장로)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은정 전도사(부천 유치부)는 “차세대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돼 뜻 깊었다”고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9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운영위원 42명 참석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의 섬과 회복, 교제와 사명을 되새기는 ‘2019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8일(금) 남한산성 목상의 집에서 개최됐다.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해외비전교회 협의회 운영위원 42명이 함께 했다.

2019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팀 빌딩, 전체 모임, 지역별 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메시지는 ‘아름

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박종길 목사가 전했다. 박 목사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성도님들과 교회가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돕는 목회자가 되길 축복한다”고 권면했다.

정장철 목사(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좋은 프로그램과 예배 덕분에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회복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양재, 송파B공동체 신설

기존 송파공동체 ‘송파A공동체’로 명칭 변경

양재 온누리교회에 ‘송파B공동체’가 신설된다. 송파B공동체는 송파 지역(오금, 오륜, 가락, 문정, 거여, 마천, 장지)과 위례신도시를 섬길 예정이다. 송파B공동체는 2월 23일 양재 화평홀에서 리더십수련회를 열고, 3월 15일 양재 온유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린다. 기존 송파공동체는 송파A공동체(김대진 목사 담당)로 명칭이 변경된다.

송파B공동체 담당 이정환 목사는 “송파지역과 위례신도시에 사는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10-8968-8231

꿈땅 어린이, 르완다 아웃리치 간다!

오는 27일까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초등학생, 이하 꿈땅) 어린이와 교사 14명이 내일(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 ‘가혼도 마을’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평화의 집짓기’ 사역을 실시한다. 꿈땅 어린이들이 모금한 저금통을

전달하고, 벽돌을 쌓고 집터를 다지는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석승호 목사(양재 꿈땅)는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세계와 열방을 향한 비전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문의: 02-3215-3521

2000선교, ‘2019 미션컨퍼런스’ 개최

2000선교본부가 ‘촉매가 되는 선교’를 주제로 지난 9일 서빙고 비전홀에서 2019 미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션컨퍼런스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 등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션컨퍼런스에서는 ‘온누리교회

의 촉매(catalyst)로서의 역할’,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케어 및 재배치’ 등을 논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란 성육신(incarnation)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온누리교회가 스스로를 깨뜨리고 섬기는 촉매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12기 개강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12기(이하 하가훈)가 3월 9일 개강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하가훈에서는 성경적인 가정관과 자녀교육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문의: 010-5471-0854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3623	김동원	S브릿지	1133662	김진아	대전 동누리	1133699	임성오	양지 서누리	1133726	이경자	성동광진
1133625	이은경	중종로	1133663	이강호	여의도	1133700	곽윤옥	양지 서누리	1133727	주승유	무궁동체
1133626	Andrew Kim	OEM영아예배	1133664	김승현	허브	1133701	채경순	양지 동누리	1133728	서효정	Bridge33+
1133627	김수은	양지 서누리	1133665	김선경	대전 남누리	1133702	배현승	양지 동누리	1133729	이민숙	인천 소망
1133628	김승현	분당B	1133666	김순재	도곡	1133703	전혜경	양지 서누리	1133730	배현진	S브릿지
1133629	예상국	동작	1133667	신동훈	갈렘	1133704	김신영	양지 동누리	1133738	김성완	서초A
1133630	유민선	부천 Dream	1133668	김효원	갈렘	1133705	김자영	수원 동누리	1133739	오영교	강남B
1133632	최재학	S브릿지	1133678	김동환	허브	1133706	성주영	동작	1133740	이준범	허브
1133633	박지혜	여호수아	1133679	김동수	J4U	1133707	황태환	J4U	1133742	김인성	허브
1133634	송율궁	성북	1133680	정현준	J4U	1133708	황민경	J4U	1133743	권영국	Bridge33+
1133635	박은영	대전 동누리	1133683	황바울	여호수아	1133710	남윤정	서빙고	1133744	이재현	인천 소망
1133636	이승원	인천 소망	1133684	장혜화	양재	1133711	백원준	부천 소망	1133747	조성우	OCC
1133637	김세빈	서초D	1133685	강보라	OEM영아예배	1133712	전 올	강남B	1133748	이은선	인천 소망
1133638	김태현	동작	1133686	문산돌	수원 동누리	1133713	김봉숙	강남C	1133749	이동현	강남C
1133639	이상준	Point5	1133687	박영숙	양지 동누리	1133714	오병우	서초A	1133760	이창현A	신용산
1133640	권영박	수원 서누리	1133688	최성훈	양지 동누리	1133715	김진원	여호수아	1133761	이지현	서초A
1133641	나현채	허브	1133689	양영숙	양지 동누리	1133716	노진영	여호수아	1133762	신수아	SNS
1133642	조성준	허브	1133690	이은기	양지 동누리	1133717	양동원	여호수아	1133763	강윤지	SNS
1133645	문지은	관악금천	1133691	강준옥	양지 동누리	1133718	이상민	인천 소망	1133764	곽태영	SNS
1133653	강연주	S브릿지	1133692	함광식	양지 동누리	1133719	최필립	여호수아	1133765	손지향	SNS
1133654	유영길	서초B	1133693	서미형	양지 동누리	1133720	황태진	여호수아	1133766	이나래	SNS
1133655	김영찬	대전 남누리	1133694	최유진	양지 동누리	1133721	신지윤	여호수아	1133767	한재준	SNS
1133656	이정미	양재	1133695	김동준	양지 서누리	1133722	김하나	여호수아			
1133657	황영주	허브	1133696	강경구	양지 서누리	1133723	신우현	여호수아			
1133660	김성우	푸른누리	1133697	권미자	양지 동누리	1133724	민지선	여호수아			
1133661	신영진	강남A	1133698	최재웅	양지 동누리	1133725	김상아	여호수아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3월 16일까지, 오디션은 3월 23일

온누리장로합창단(이하 장로합창단)에서 3월 16일까지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을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장로(시무, 사역, 협동 장로)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디션은 3월 23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실(지하 1층)에서 한다. 곡목은 자유곡이다.

2012년 10월 7일 창단한 장로합창단에는 온누리교회 장로 75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정기연주회, 러브소나타, 미자립교회 등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연습한다.

문의: 010-8967-5530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 종료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에는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에서는 CIS연합(Rusta), 몽골,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태국 등 6개국 연합집회를 포함해서 20여 개 공동체가 국가별 연합집회를 실시했다.

■ 브릿지33+공동체 사역팀장 간증



/ 변성우 팀장(브릿지33+공동체)

2014년 1월 온누리교회에 처음 출석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주민사역, 청소년사역, 병원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각 공동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1다락방 1사역이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다. 온누리교회는 모든 교인이 사역자로 참여하는 교회다. 나도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1다락방 1사역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했다. 섬김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브릿지33+공동체 사역팀장으로 헌신하게 됐다.

1다락방 1사역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 안에서 잘 모르던 성도들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가 점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간다.

브릿지33+공동체는 다양한 곳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천사의 집(지체 장애인 보호소)과 안산M센터 등을 주로 방문한다. 천사의 집에서는 찬양, 율동,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한다. 그곳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이 우리가 준비한 활동을 통해서 환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웃음 짓는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삶의 소망을 얻는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안산M센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몽골인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린다. 몽골인들은 한국에서 문화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도 해주고 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가 크게 부흥했다. 많은 몽골인들이 안산M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몽골인들을 섬기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몽골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 말이 안 통하다 보니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과 힘을 사역팀원들에게 부여주셔서 이제는 몽골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 기도가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리더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고 있다. 사역팀장을 맡으면서 우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겠다고 결단했다.

■ CGNTV 시청 후기



/ 김일연 목사(동서비전교회)

설날 특집 단막극 ‘다시 봄’을 시청했다. 공중파의 전매특허처럼 여겨졌던 단막극을 CGNTV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극중에서 최 목사님이 홀로 사시는 할머니를 위해 수박, 꽃다발, 전기장판, 텔레비전 등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꼭 나를 보는 기분이었다. 최 목사님이 보라가 아끼는 텔레비전을 들고 나가다가 딸 보라와 마주친 장면에서 우리 딸(19세)이 생각났다. 나에게 늘 교회에 출석하는 엄마 없는 아이들이 1순위였다. 화난 보라의 모습에서 우리 딸 진희가 보였다. 다른 아이들만 사랑하는 남의 아빠가 된 내 모습을 깨달았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농촌에서 개척목회를 하면서 엄마 없는 아이들과 삶의 눈높이를 맞추다며 한 번도 난방을 하지 않고 냉방에서 살았다. 정작 내 딸아이의 눈높이는 한 번도 맞춰주지 못했던 부족한 아버지의 자화상이 보였다.

‘다시 봄’을 보는 내내 아픈 가슴으로 화면을 주목했다. 늘 아버지의 눈높이에 딸이 맞춰주길 원했던 내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핸드폰이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고, 외출용 예쁜 옷을 사 달라고 하면 아빠는 교복만 입고 살았다고 말했다.

‘다시 봄’과 나

치매로 아픈 보라 어머니를 보면서 아내를 생각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아픈 몸으로 할머니댁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할머니를 무릎으로 안고 목욕을 시키면서 심신이 탈진되어 주일 점심식사 준비를 순교정신으로 하던 아내가 겹쳐보였다.

상처투성이 보라가 치매로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아버지께서 묵화하던 교회 결혼식장에 참석하면서 옛 친구들과 집사님을 만나 치유 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이상적인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라는 결론을 얻었다. 모처럼 교회 뜰에 모여 찬양하는 현성오빠, 창우, 찬수, 미연, 보라 등 완전체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교회 친구들을 만나 영성으로 교제하는 문화변혁도 꿈꿔 본다.

마지막 장면에서 힘찬 음악과 함께 넓게 펼쳐진 가을의 황금 들판과 높은 산을 활짝 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태산도 뛰어 넘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솟아올라 힘차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CGNTV에서 영화도 제작하면 참 좋겠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농촌의 4계절을 담고, 영성을 담아 문화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소망한다.

기고

잘 떠나는 아이가 성공한 자녀,
잘 보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유하원 성도
(강남A공동체, 대치동 eMAX어학원장)

“드라마 SKY 캐슬이 어디까지가 진짜 인가요?”

12년이 넘도록 대치동 학원가에 있었지만, 요즘처럼 일개 드라마에 대해 이처럼 많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극 중의 두 장면으로 답하고 싶다. 하버드 학생 행세 중이던 딸의 자작극 실체를 깨닫고 노승혜가 이렇게 고백했다.

“내 꿈은 다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빈껍데기 같아요.”

또 강준상이 목 놓아 울부짖는 오열도 대치동에서 자주 듣는 곡성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씀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 놔줬어요. 어머니가!”

강준상은 엄마의 교육(敎慾)으로 의사가 되었지만 5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70대 어머니에게 통제당하고 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나왔던 주인공들은 주로 30대였고, 부모 아닌 술잔을 바라보면서 가슴앓이 하는 것

이 다들 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육열의 기준과 자녀를 향한 목표 범위 중 하나는 ‘건강한 독립’에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떠나’가 이 말씀의 첫 동사다. 이는 절교가 아니다.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의미한다. 반려동물과 자녀를 키우는 것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것은 함께 붙어 지내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보살핌은 독립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자녀를 속이며 여전히 심리적 탯줄을 꼭 쥐고 있는 노승혜들, 아이를 향한 과도한 보호와 통제 결과 성인이 되어도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강준상들, 더 비참한 부류는 계속 사랑해 달라며 부모의 바지 자락을 붙들고 있는 성인 아이들이다. 사랑하기에 놓아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보내준다는 부모들 밑에서 준비된 자녀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거의 못 보았다. 부모와 자녀를 묶고 있는 탯줄에서 서로가 탈출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잘 떠나는 아이가 성공한 자녀이다. 잘 보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떠나=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SKY 캐슬’을 넘어 ‘SKY(천국) 복음’을 택한 세 가정의 이야기로 답변하고 싶다.

첫 번째 가정은 필자의 이모 이야기다. 이모의 세 자녀는 모두 30대다. 서울대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교수, 의사, 공학박사이다. 이모의 삶은 드라마 SKY 캐슬 이야기와 거리가 멀다. 이모는 순장으로 오랜 기간 순원들을 섬겼다. 소녀가장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무료로 학습을 돕기도 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며 암 투병 중인 치매 시아버님을 당신 댁에서 수년 동안 모셨다. 이 모든 일은 자녀들이 고3일 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지금은 30대들이 대학 가던 시절과 다른 세상”이라고 반발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수 안하고 올해 대학가는 한 학생의 이야기로 답변하겠다. 필자의 이전 순장님의 자녀 이야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예배나 여름, 겨울 수련회에 결석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학교열 높기로 유명한 강남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할 정도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그 학생은 SKY

대학 한 곳에서 입학 허락을 받았다.

마지막 주인공은 필자의 현재 순장님 가정의 이야기이다. 맞벌이 선생님인 순장님이 어느 날 순모임 중에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물어요”라고 씁쓸해했다. 그 순장님은 학교 특별활동비를 챙겨오지 못하는 불우한 학생을 남모르게 돕는 분이셨다. 해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새벽부터 봉사하시는 분이다. 농촌 교회를 돕는 사역도 수년 동안 섬기셨다. 이 모든 일은 순장님의 큰딸이 고3일 때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겨울, 순장님의 딸은 SKY 모든 학교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오해 없길 바란다. 특정 대학 입학이 성공의 척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세속적 이득을 위한 신앙적 투자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주장은 이렇다. SKY를 관음하며 자녀의 내면세계에 흠탕물질 안 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것이다. 사명이 뚜렷한 부모를 보며 자녀의 목표도 뚜렷해지는 선순환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 또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하는 지혜 중 하나이다. 사교육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그만이다.

장로칼럼

‘순’이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산다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건강한 순장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원들을 사랑하고, 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행동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열정과 책임감으로 순원들을 품어준다. 성숙한 공동체 리더십은 이러한 순장님들을 세워주고 격려한다.

리더십들은 관계 속에서도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를 용납하며 축복해야 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는 리더십의 선행과 성도들의 합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온누리교회 창후 30년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지 그 동안 마련이 시급하다. 새해에 순장영성수련회를 앞두고 각 공동체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 이는 순장님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한 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순장님의 영적 성숙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와 순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자기 개발 기획력도 선행돼야 한다. 나는 그 방안으로 모바일을 통한 ‘말씀 한 구절 매일 묵상’을 제시하고 싶다. 순장님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순원들과 공감과 소통을 이루면서 영성을 키워가야 한다. 또한 영성 칼럼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덕목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순장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살펴봐야 한다. 많은 순장님들이 순 목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장님들은 가정과 일터뿐 아니라 순장모임, 주차, 예배봉사, 교회사역 등 많은 영역들을 섬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힘에 겨워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봉사와 행사는 안수집사 부부를 중심으로 순원들과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서로를 격려하는 ‘토닥토닥’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이는 공동체와 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또한 공동체 안에 순원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기도의 집’을 만들기를 권한다. 그래서 순원들의 질병, 자녀문제, 부부관계 등 모든 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중보기도모임은 담당 사역자들과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순 가족음악회’ 등 순장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섬김을 통해서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공동체가 자기 지역을 돌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을 벗어나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참여도가 떨어진다. 먼저 가까운 이웃과 관계부터 맺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부터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 지역 안에서 꽃 필 수 있도록 공동체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순이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교회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내 가족처럼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점을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빌 2:1~4).

권사칼럼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심혜숙 권사
(영등포구로공동체)

영등포구로공동체는 1다락방 1사역으로 영등포 광야교회와 함께 영등포역 일대에 있는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영등포구로 공동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얼굴을 환하게 웃음 짓게 한다.

처음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는 사역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석했다. 그런데 막상 낸 새 나는 노숙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한 악취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본 광야교회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권사님 기도해보세요. 냄새가 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노숙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 달라고 간구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더니 놀랍게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금세 그들과 가까워졌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들이 변화되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등포구로 공동체 성도들은 매주 토요일 영등포 광야교회 교인들과 함께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봉사와 거리전도를 하고 있

다. 또 주일에는 예배봉사로 섬긴다. 겨울에는 어묵탕을 준비해서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춥고 굶주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집에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전하고 있다. 우리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시는 쪽방촌 주민들이 많다. 한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를 위해 겨울팔기를 준비해 주셨다. 나도 내가 만든 약식을 아주머니께 전해드렸다. 아름다운 나눔 안에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영등포 광야교회에서는 매년 11월이면 ‘광야인의 날’이라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노숙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영등포구로공동체에서도 광야인의 날에 기타 앙상블 연주와 권사회의 난타 공연, 장로 합창단의 블레싱으로 노숙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지난해 광야인의 날에서는 광야교회 성도들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잡바 2편 발을 전달했다. 처음에는 재정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영등포구로공동체는 그 소식을 듣고 재정을 모으는데 도움을 줬다. 온누리교회 권사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지원으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에서는 노숙인들의 휴식공간인 영등포 광야교회 사당다리 방 건축비를 비전헌금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헌신적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 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 나는 썰과리와 같을 뿐입니다”(고전 13:1).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

신앙에세이

최용준 목사
(이천공동체)

시편 92편은 시편 기자의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다. 본문에는 원수들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이런 정황상 시편 기자가 기쁨 만한 상황은 분명 아닐 듯하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92편의 소재목이 ‘안식의 찬송’이라는 것이다.

시편 92편에서 안식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특별한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 안식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안식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빠르고 바쁜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안식보다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하다. 이 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든다. 악인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와 세상의 것으로 점점 대체한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과 풀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 결국 악인들은 자신들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한 평생 바쁘게 살기만 한다.

안식은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안식은 단순히 멎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한다. 바쁜 일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나는 이것이 ‘일상

의 예배’라고 생각한다.

안식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다. 물론 바쁜 일을 과감하게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멈춤은 내 삶의 중심이 직장이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둘째, 휴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기 않으셨다. 열심히 일한 만큼 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치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것처럼 쉬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회복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셋째,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은 내 삶에 작은 부분도 신기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신비임을 고백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안식은 나를 창조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바쁘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충분히 묵상할 때

다시금 세상의 리듬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안식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라는 영역이 있다. 이 부분은 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영역이다. 즉, 바쁜 일을 멈추고 쉴 때에만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자아성찰, 창의성, 통찰력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멈추고 휴식할 때 뇌는 가장 창조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안식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뇌를 가장 창조적이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안식을 통해서만 바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한다.

NGO 더멋진세상과 네팔 고레다라 마을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5년 4월 25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을 찾아가 구호활동을 펼쳤다. 긴급구호를 펼쳤던 지역 중에서 한 마을을 선택 해서 2016년 4월부터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폐허였던 고레다라 마을에 새집 69채를 짓고,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마을 내부 도로 및 상수도 개선 등 마을의 위생과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덕분에 마을 전체가 희망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 갔다.

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고레다라 마을을 찾아와 무너진 가옥을 세워주고,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마을로 변화시켜준 헌신적인 섬김에 마을 주민들이 감동했다. 마을 재건을 위해 직접 찾아가 함께 생활하며 낮은 자세로 공사 현장을 섬겨준 선교사들의 성



육신적인 헌신과 순수한 섬김은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 람바들 형제는 교회가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마을 사람 모두가 술에 취하고, 노름을 하고, 서로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점

하나님의 작품

차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두교인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매주 한두 명씩 교회에 출석합니다. 5년 이내에는 마을주민 9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할 것을 소망합니다.”

지진피해 긴급 조기복구 이후 사업결과에 대한 네팔 정부의 모니터링 작업이 길어져 1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8년 말 공식 최종 사업결과가 나오고 주민들도 스스로 준비가 되어 2019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교회의 자생적 변화와 성장이다. 지진 전 주민 6명이 모여 예배하던 작은 공간이 현재 100여 명 이상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는 전체 주민 31%(주민 325명)에 해당한다.

고레다라 마을 은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거바들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10여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레다라 마을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 최진혁 실장(NGO 더멋진세상)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유정은 한정화
이서정 박영정
장용준 조성훈
최호영 차상윤
한정모 페드첸코
세르케이

■ 강서
김미라 변경숙
양경미 심민희
이지영 남남옥
조해연 박현숙

■ 강촌
김정민 김연희
이단희 조정희
이준경 최연수
정승재 조래철
최은정 임미라

■ 고양은평
구병삼 조정구
구재형 정병욱
김두호 김용순
김영진 황미경
김인수 최석태
박유미 손은유
서연순 박기영
이흥주 김병일
전지원 구자엽
정해영 김승연
최수진 성경희
한서윤 김덕겸

■ 관악금천
고해선 김승진
김세미 김혜진
김영신 한순혜
김은옥 김연숙
오유근 허윤한
오지희 광미리
최수웅 이종배

■ 광명
남창아 이선희
장미숙 장길희
카 샤 김사론

■ 김포
천광욱 박용권

■ 노원
김재훈 조승용
문승영 연영옥
유영희 하영순
이희진 김정은
최종서 권우재

■ 동대문중랑
강희경 오수정

김기영 정순애
김은정 정순애
김 철 최호림
이민희 송기현
임선옥 황윤익
정영범 임종철
최순화 갈자영

■ 동작
강예은 김세원
김재오 이동현
김태임 원희태
연창욱 이종택
이현정 조미영
장민우 전홍수
홍정화 이선남

■ 마포
강 삼 최윤기
김나희 현해련
김정현 이은경
김혜림 안혜성
성수정 김일숙
손지해 강수경
이미경 민정희
이태순 최화경
정두식 YOON
JAMES HUN
정윤주 윤영옥
홍지영 배미령
황수연 김은신

■ 북누리
이승철 박경하

■ 서대문
김윤지 양미숙
김은영 김성임
김지영 김현주
진성은 이영미

■ 서산 온누리
김윤은 서종은
왕옥희 김명희
전화숙 김명희

■ 성북
김대중 이한주
노영희 조민주
문기은 우주현
박영미 신수하
석희정 이경주
이은경 김은희
정영옥 김성민
조화림 김영구
최윤희 김 경

■ 신용산
고영애 김정숙
구송희 유혜리
나경희 박은신
배선도 강길환

■ 양천
변○○ 조선녀
오수정 김미향
이한솔 육희정
조윤정 조선녀

■ 영등포구로
강수연 박영진
고아라 김경숙
박주희 이홍선
빙지영 김문화
정현우 정광렬
채진아 박선영

■ 용산
김명관 강명원
김정윤 문명숙
김지희 함유민
서지현 박은주
이선영 임정수
이진호 김상석
전승빈 조성란
조수현 박은옥
함유선 이정분

■ 이수
문명숙 박재영
양세진 이종선
유정호 허 백
이나영 오미연
이 호 이종선
임승은 윤연정
현진호 한경수
홍한선 오광록

■ 이촌
양석정 최순호
유경선 최숙경
이승환 백대현
이재현 정지태

■ 이촌
BABA DAISUKE
배성한
NONQUE MIYOKO
임종남
박호남 배성한
장미영 전현주

■ 일산
고금숙 임미정
민예령 박지영
박화진 권영철
변재용 박명희
양현숙 장용란

유순식 박혜옥
임경영 홍미선
최민영 김은희
최정숙 최양희

■ 중국어배
LIANG CHENGKUI
김규남

■ 중종로
김인선 강은주
김진우 강성희
박민숙 남영우
박성인 송영이
엄기찬 남승범
이지은 하은진
정진만 윤민학

■ 특별한초대
박하나 이미경
유다선 이재은
최은지 지승빈

■ 한강
Bonus Rustico
배준학
박연정 박주현
이재호 오덕훈
이현정 오정원
정옥주 신승애

■ 공동체없음
박경도 정지민
백은나 주명숙
유철환 김남철
이상철 최형식
장윤하 장숙재
정한수 정태선
조현숙 도완선
함희지 정혜윤

■ OCC
남영순 이미영
안재찬 김준규
조성우 이초섭

■ S브릿지
권오선 김윤옥
김수아 이순자
김지수 임국희
김현호 김수영
김화평 한정화
민은식 김의남
박성준 정환민
윤주희 이수경
이선의 유지연
이설희 정은정
이숙희 이상은
임정은 이승연
전민영 정미나
전용현 홍현화
정승진 엄은주
조한익 나영우

■ 도곡
김경미 전경은
김순재 김은희
김지현 김윤형
김후상 정현식
문우영 박진우
박종해 주동욱
백경혜 김한순
송은영 유미라
윤정주 권용범
이나리 이일진
이재민 주소희
이정아 석지영
이진신 박철순
조선정 이숙혜
하영아 정명옥

현지영 한대인

■ 양재
■ 강남A
하은아 박용선
황의용 안용길

■ 강남B
김빛나 이경희
김용범 박완서
김종철 심호무
김수연 윤현정
김현실 이소현
민혜경 권용미
오도훈 김남수
이범선 성방주
제진산 장성수
천순철 이광조

■ 서초A
김 환 윤석일
손금미 남혜용
송석재 최선준

■ 서초B
김기완 이상협
박진주 한금원
안상옥 한형기
이경민 박영숙
이경희 김수진

■ 서초C
김명숙 안진호
김영주 김희정
김지연 백은희
오수용 최준환
이세영 홍수자
이승현 김영관
이혁수 최창수
조수현 정정숙

■ 서초D
김윤미 김지영
김지영 최보비
안재준 이광재
이상현 이상오
이혜솔 이지선
임은선 류현수
임 혁 이기성
홍서희 이준자

■ 송파A
유덕영 임재열
이기열 황성윤
이순자 백경은
전계환 김세진
천준수 김건백
최진경 김길선
홍지영 김혜선

■ 송파B
문찬미 최지훈

■ 양재
김미영 사미옥
강옥규 김은숙
김성관 최명희
김애희 장정아
김진순 하효단
문정곤 박순호
안정심 신창순
유소영 임기남
유양우 김동수
유재화 이용권
이영희 신봉섭
이재덕 한상후
이한상 강성석
임민욱 김두환
최주연 이흥미
최유규 전병진
최지혜 서장명
함해선 장 진
한지영 안지영

■ 분당B
김동식 김정민
김설희 이정연
이영희 신봉섭
이재덕 한상후
이한상 강성석
임민욱 김두환
최주연 이흥미
최유규 전병진
최지혜 서장명
함해선 장 진
한지영 안지영

■ 푸른누리
명수진 조은영
문지혜 유광희
정태남 신호식
송경배 김경수
이동희 엄찬용
이상협 김영옥
이상협 박준수
이현철 김승한
전미연 이현철
황해진 정희선

■ Bridge33+
김나미 이승희
이효진 김두희
임경화 김은실
장영은 김명조
차이슬 고선옥

■ 하늘
김종현 이종우
왕수용 박경남
정현근 이상기

■ 허브
권혁찬 양상훈
김시라 김민아
김유리 권연주
김준영 이준구
김현지 제민선
문소연 손지영
박화영 송현진
온지혜 유미미
이수진 권연주
이승현 이상주
전준수 황성훈
전준호 윤성주

■ 여호수아
강예림 이혜련
고도영 이정숙
김민정 강현주
김 불 김혜진
김성철 방 옥
김은주 김애련
김은택 고봉익
류명완 강민균
배대상 김중규

■ W
박아영 양윤미
신은화 김민정
이예진 허운정
이지원 조은미
이현정 송기현
최아름 하채영
표인선 안수옥

■ 대청
■ 갈렙
양주리 하윤경

■ 길
김시나 김경희
노다현 김남희
노은빛 손은경

■ CH630
박세환 김현태

■ J4U
김미혜 송동희
김민아 신윤옥
김민재 주수일
김수현 이자선
김진유 김소운
김태현 안영성
민솔이 양미혜
양승규 문혁훈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Pole2
김윤지 송명희
백은선 김선미
유지은 장미영
이승이 이은희
이수진 유영윤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황선민 박예은

■ SNS
김나현 오미경
김동연 장은진
김봉남 박소영
김수진 박혜옥
김 식 장재근
김예지 오윤희
김은유 김수경
김정원 오민정
김현경 복유선
김하수 장연정
김하수 임미희
류제훈 장지숙
박소희 유미란
박솔이 오수향
박재희 양희정
박정원 여혜송
박준경 김홍구
배소영 김소연
성혜영 오용순
손지예 정은영
신지원 김은실
신지은 고옥경
유수지 김진경
유혜린 박미선
윤남형 장진희
이미정 유선미
이유재 유기연
이지혜 하정애
이희선 이종미
임소현 김민정
장훈지 김민기
정희선 노영주
최진화 권남희

Acts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9년 2월 17일(주일) | 제1233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

예배 예약안내

일시: 3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자적: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

능(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이어야 함)

문의: 서빙고 최연희 간사(02-3215-3179)

양재 배현서 간사(02-570-7505)

서빙고, 양지 비전빌리지 조리원 모집

모집: 한식당 배식, 주방정리, 조리사

보조 등

문의: 오종한(02-3215-3101)

CGNTV 세라핌 합창단 모집

오디션: 3월 10일 오후 2:30

문의: 010-4775-2403

두란노아버지학교151기 모집

일시: 3월 23일~4월 20일(매주 토요일)

문의: 02-2182-9100

온누리 남성성교합창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 오후 7:20

문의: 신준환 성가사[010-5304-7039]

서빙고 창조신앙스쿨

기간: 3월 10일~4월 7일 오후 1:30~3:30

문의: 010-7292-2349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모집

대상: 22~38개월

문의: 임지희 코치(010-6253-7397)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3회 시청수기 공모전

공모주제

CGN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

접수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22일(금)

당선작 발표: 2019년 3월 29일(금)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예정

참여방법

CGNTV 홈페이지 접수

www.cgntv.net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제공 양식 사용)

cgnessay@cgnmail.net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CGNTV 홈페이지
www.cgntv.net 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콘텐츠편성전략팀 02-3275-9446

시상내역

대상(1명)



최신 스마트폰
(100만원 상당)

최우수상(1명)



TV
(50만원 상당)

우수상(3명)



외식상품권
(15만원 상당)

장려상(5명)



보조배터리
(2만원 상당)

입상(10명)



커피 기프티콘
(1만원 상당)

*접수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CGNTV에 귀속됨

2019 CGNTV 시청자 설문조사

CGNTV가 2019년을 맞아 시청자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 설문참여 CGNTV 홈페이지 www.cgntv.net 내 설문조사 페이지 방문

■ 설문기간 2월 15일(금) ~ 2월 24일(주일)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